“어디 살든 돌봄 걱정 없어야”…‘남빛돌봄’ 설계 착수

전남광주시, 시·군·구 맞춤형 모델 개발

광주다움 통합돌봄 고도화…서비스 보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민이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돌봄을 받도록 27개 시·군·구 특성을 반영한 ‘남빛돌봄’ 모델 설계에 착수했다.

5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무안청사에서 시·군·구 통합돌봄 실무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빛돌봄 솔루션팀’ 첫 회의를 열었다.

‘남빛돌봄’은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고도화하고 도시·농어촌·섬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남광주시 돌봄모델이다. 국가 의료·요양 통합돌봄의 빈틈을 보완하는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솔루션팀은 전남광주시가 정책을 수립해 시·군·구에 전달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실무자가 정책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 정책 개발을 위해 구성됐다.

핵심은 공공이 책임지는 ‘남빛기본돌봄’과 주민·공동체가 서로 살피는 ‘남빛공동체돌봄’이다.

남빛기본돌봄은 소득·연령·재산·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어디서나 공공이 먼저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다.

남빛공동체돌봄은 공적 서비스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일상 속 돌봄 공백을 이웃과 공동체가 함께 메우는 방식이다.

‘필요한 돌봄은 공공이 든든하게, 일상의 돌봄은 이웃이 다정하게’라는 방향 아래 지역별 인구구조와 생활환경, 돌봄 인프라를 고려한 유형별 돌봄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 돌봄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는 기본돌봄센터 등 공공 돌봄거점을 구축하고, 사회연대경제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돌봄체계도 조성할 방침이다.

첫 회의에서는 시·군·구별 통합돌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인력 부족과 기관 간 연계, 서비스 공백 등 현장의 어려움을 논의했다.

또한 도시·농어촌·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돌봄모델과 민간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기본돌봄센터 등 공공 돌봄거점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솔루션팀은 앞으로 수시로 실무회의를 열어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 유형별 돌봄모델 개발과 27개 시·군·구 확산을 위한 사업 설계·평가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정광선 돌봄복지국장은 “남빛돌봄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며 “어디에 살든 돌봄 걱정 없는 전남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AI 시설물 안전관리 플랫폼’ 개발 눈길

신해섭 주무관 예산·용역 없이 성과

설계내역서 작성 30일→1일 단축

시설물 분류·점검 생략 여부 판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무원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실무 플랫폼’을 운영해 주목받고 있다.

5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종합건설본부 신해섭 주무관은 교량·터널·지하차도·옹벽 등 도로 시설물의 안전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플랫폼을 직접 기획·개발했다.

그동안 시설물 관리 담당자는 수백개 시설물의 점검 일정을 일일이 확인하고 안전점검 용역 발주에 필요한 설계내역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등 반복적인 업무에 상당한 시간을 투입해 왔다.

이에 신 주무관은 AI 기술을 개발 도구로 활용해 별도의 예산이나 외부 용역 없이 플랫폼을 구축했다.

플랫폼은 법적 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자동 분류하고 상위 점검 시행 여부를 분석해 하위 점검을 생략할 수 있는지 판정한다.

이를 통해 점검 대상 검토 부담을 줄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점검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돕는다.

또 점검 보고서마다 흩어져 있던 손상·균열과 보수·보강 기록을 시설물별로 한곳에 모아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점검·진단 용역 설계내역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갖춰 기존 30일 이상 소요되던 작성 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하기도 했다.

손두영 종합건설본부장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직원과 시민 모두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전남광주소방, 수능일 ‘119 이송 지원 서비스’

거동 불편 광주권 수험생 대상

18일까지 사전 예약 전화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는 5일 “오는 19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장애인과 사고·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광주권 수험생의 원활한 시험 응시를 돕기 위해 ‘119 이송 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119 이송 지원 서비스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다. 사전 예약을 거쳐 시험 당일 자택에서 시험장까지 119구급차로 안전하게 이송하고 시험 종료 후 귀가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수험생이나 보호자는 시험 전날인 18일까지 가까운 소방서(광주권역에 한함)로 전화 예약하면 된다. 원활한 이송 지원을 위해 예약 때 수험생의 거동 상태와 이송이 필요한 시험장학교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소방본부 광주권역부본부는 수능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나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시험장에 전문자격을 갖춘 구급대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변은진 기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5일 무안청사 왕인실에서 열린 ‘직원과 함께하는 공감톡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시, 소통·공감으로 조직 화합 다진다

무안청사서 ‘공감톡톡’…업무경험 공유

閔시장 “직원들 새 도전·역량 발휘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5일 무안청사에서 ‘11월 직원과 함께하는 공감톡톡’을 열고 통합 이후 서로 다른 조직문화를 이해하고 업무 경험을 공유하며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다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민형배 전남광주시장과 부시장, 실·국장, 직원 등이 참석했다. 지난 9월 광주청사와 10월 동부청사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공감톡톡’은 광주·동부청사에도 실시간 중계됐다.

행사는 전남광주통합시립국악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통합을 주제로 한 연극 ‘공감 톡!’, 직원 업무사례 발표 ‘직원 톡!’, 시장과 직원이 소통하는 ‘시장님 톡!’ 순으로 진행됐다.

‘공감 톡!’에서는 직원과 민형배 시장이 함께 연극에 참여해 ‘통합은 했는데, 마음은 통합됐습니까’를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연극은 통합 이후 서로 다른 업무방식과 조직문화에서 겪는 직원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담았다.

또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으로 일자리가 늘고 청년이 고향에서 꿈을 키워가는 2030년의 모습을 그리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를 표현했다.

‘직원 톡!’에서는 기업과의 협력,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설득을 통한 국고사업 발굴 등 현장에서 쌓은 업무 경험을 공유했다.

곽부영 산업정책조선과장은 ‘현대삼호 협력관’ 활동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한 경험과 성과를 전했다.

문미란 곡성부군수는 국립 다도해 산림치유원 추진 사례와 2031 곡성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준비 과정을 중심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 발굴과 중앙정부 협의·설득 과정을 소개했다.

‘시장님 톡!’에서는 민형배 시장이 직원과 격의 없이 이야기를 나누며 전남광주시의 방향과 공직자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민형배 시장은 “통합 이후 조직개편과 행정사무감사, 예산편성 등 각종 현안에 대응하느라 수고했다”며 “새로운 일에 과감하게 도전하며 각자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시는 앞으로도 광주·동부·무안 3개 청사를 순회하며 ‘공감톡톡’을 개최하고 직원의 업무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소통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최명진 기자

